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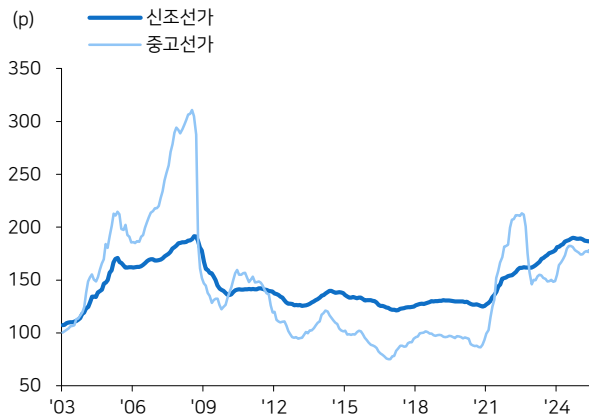
조선/기계 Analyst 배기연

02. 6454-4879

kiyeon.bae@meritz.co.kr

## 국내외 주요 지표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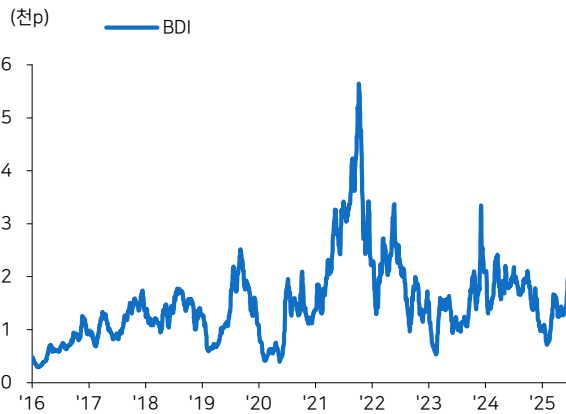
신조선가 186.9(+0.1 Wo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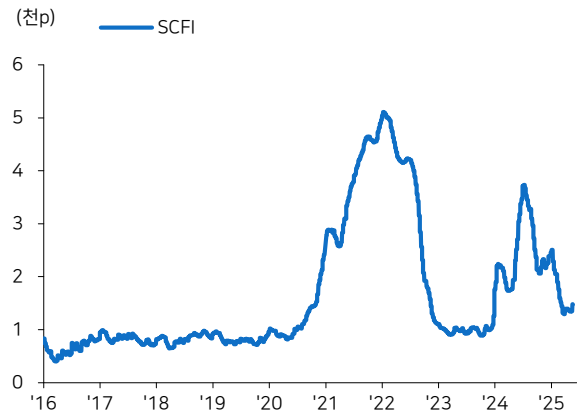
중국 내수 후판가격 478.0달러(-3.0p Wo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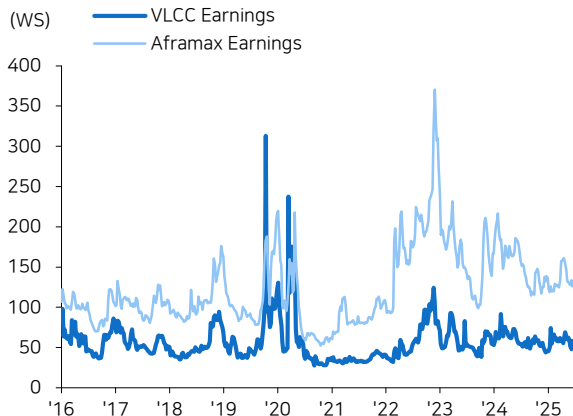
건화물운임(BDI) 1,874.0p(-78.0p Do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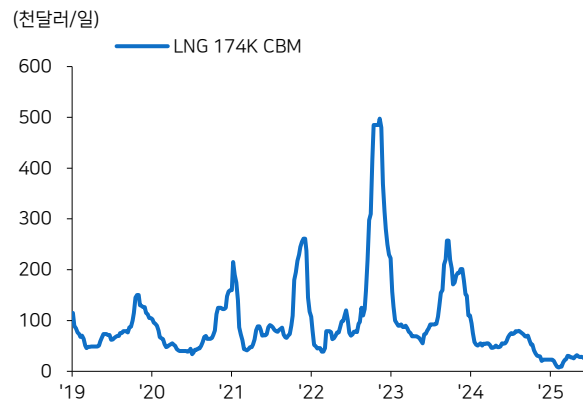
컨테이너운임(SCFI) 2,088.2p(-152.1p WoW)



VLCC Spot Rate 58.2WS(+10.4p WoW)



LNG Spot 운임 28.5천달러(+3.8p WoW)



자료: Clarksons, Bloomberg,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 국내외 주요 뉴스 및 코멘트

## EU proposes ban on Russian gas imports by end of 2027

EU 집행위가 2027년 말까지 러시아산 가스 및 LNG 수입을 법적으로 금지하는 방안을 제안했으며, 신규 계약은 2026년부터, 기존 단기계약은 2025년, 장기계약은 2028년부터 각각 금지될 예정이라고 전해짐. 헝가리와 슬로바키아는 반대 입장을 보였으나, 이번 조치는 다수결 법안을 통해 이들의 거부권을 무력화하려는 시도로 알려짐. EU는 기업들이 러시아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법적 장치를 마련했지만, 중재나 소송 위험은 여전히 존재한다고 보도됨. (Reuters)(<https://buly.kr/2Jolkz0>)

## Trump takes another step toward opening up Alaska for oil and gas leasing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 행정부가 알래스카 국립석유보존구역의 82%를 석유·가스 개발 가능 지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보도됨. 미국 내무부는 총 2,300만 에이커 중 1,890만 에이커를 포함하는 초안 보고서를 발표했으며, 7월 1일까지 공공 의견 수렴을 진행한다고 전해짐. 이는 바이든 행정부가 시행했던 임대 금지 조치를 되돌리는 움직임으로, 미 의회에서는 관련 법안이 하원을 통과해 상원 심의를 앞두고 있는 상황임. (Upstream)(<https://buly.kr/3Nlqelo>)

## 암모니아 오수 배출, 국제 기준 만든다... KR-조선5사-KTR 협의체 출범

한국 조선사와 인증·시험기관이 암모니아 추진선의 독성 오수 해양배출 기준 마련을 위해 협의체를 출범시켰다고 보도됨. 해당 기준은 2026년까지 초안 마련 후 IMO에 제출할 계획이며, 국제 규제 공백을 해소하고 기술 불확실성 해소를 목표로 한다고 전해짐. 이번 협의체는 HD현대·삼성중공업·한화오션·KTR·KR 등이 참여해 조선산업의 기술 우위 확보와 국제 표준 선도를 추진하는 전략적 대응으로 알려짐. (투데이에너지)(<https://buly.kr/150zu5n>)

## HD현대미포, MR탱커 기본인증 획득

HD현대미포조선이 라이베리아국(LISCR), 로이드선급과 협력해 전방 거주구 설계를 적용한 5만 DWT급 친환경 MR탱커에 대한 기본 승인(AiP)을 획득함. 해당 설계는 선체 무게 중심과 공기 저항 최적화를 통해 연료 효율과 탄소 배출 저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구조로 평가됨. 이번 승인은 강화되는 IMO 환경 규제 대응 및 노후 MR탱커 교체 수요 증가에 따른 친환경 선박 시장 내 경쟁력 확보를 위한 기반이라고 전해짐. (더구루)(<https://buly.kr/4xXfHnc>)

## '임단협 잠정 합의' 한화오션 노조, 고공농성 중단 ... 사측, 손배소 취하 검토

한화오션 노사와 하청 노동자 단체가 2024년 임금단체협상에서 상여금 50% 인상 등에 합의하며 의견 접근안을 도출했다고 보도됨. 이에 따라 서울 한화빌딩 앞 철탑에서 95일간 이어진 김형수 조선하청지회장의 고공농성은 중단될 예정이라고 전해짐. 한화오션은 2022년 파업과 선박 독 점거와 관련해 제기했던 470억 원 규모 손해배상 소송 취하를 검토 중이며, 이사회 승인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전해짐. (아시아경제)(<https://buly.kr/CLzUfvc>)

## Middle East chaos pushes VLGC rates to highest level in a year

중동 무력 충돌 여파로 사우디일본 VLGC 운임이 하루 68,200달러로 1년래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발틱거래소가 보도함. OPIS는 라스 타누라치바 항로가 하루 8,000달러 프리미엄을 형성하고 일부 톤당 90달러 선까지 운임이 치솟았다고 전함. 선주들이 중동 걸프 지역 운항을 기피하면서 전쟁 위험 추가보험료 인상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으며, LPG 가격 역시 동반 상승세를 보이는 중이라고 전해짐. (TradeWinds)(<https://buly.kr/31TKfzs>)

## Compliance Notice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본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당사의 허락 없이 복사, 대여, 배포될 수 없습니다.